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출장기간 : 2023. 10. 25. ~ 2023. 11. 7.

출 장 지 : 일본(도쿄, 모리오카 등)

출 장 자 : 강 영 주

1. 출장목적

수요표현(Demand Articulation) 연구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일본의 문헌 자료를 확보하고,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수요표현 사례를 파악

수요표현은 이노베이션시스템에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시장 혹은 수요자의 요구 사항에 대한 공급자의 학습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용어로 이노베이션 연구 분야에서 개발된 개념으로 일본에서는 도쿄대학 후미오 코다마 교수 등을 통해 연구가 선도적으로 추진되었음

이노베이션의 프로세스가 기술발전으로 점차 짧아지고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신 기술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기업 혹은 관련 업계(오픈이노베이션의 일상화로 관련된 업계 전체의 생존과 연결되는 상황)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음. 따라서 수요표현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기업, 시장 혹은 국가는 경쟁의 우위에 설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개념임. 또한 기술혁신에 따른 제도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사회/정책환경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수요표현 관련 연구는 미국 일본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상당한 연구가 추진되었으나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고, 특히 정책 분야에서는 전무한 실정임. 다만 일부 장기비전계획에서의 시민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여러 방법론의 검토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관련 연구자료의 경우, 현재 국내에서는 일부 온라인 상의 해외 논문자료(특히 미국, 일본의 경우는 온라인 상에 논문 게재가 일반적이지 않고 해외 서비스가 제한적임)를 제외하고는 관련 문헌자료의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로 관련 연구 자료를 먼저 확보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일본 국립대학 도서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관련 논문 등의 파일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와같이 국내에서의 수요표현 관련 연구는 예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
이어서 관련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문헌 자료 확보 및 기초 조사
를 통해 수요표현의 정의를 일반화하고 국내의 정책 환경에의 도입가능
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유사한 경제시스템 및 혁신시스템의 특성을 가지는 일본의 수요
표현 연구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특히 지자체의 수
요표현 적용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본격 연구의 자료를 확보하고,
우리 시의 장기 비전 수립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본 공무국외여행은 관련 학술자료를 확보하고, 일본의 수도
인 도쿄(분야별 가장 다양한 장기계획 수립), 토호쿠 5현 중 이와테현(광
역자치단체 사례)의 지자체를 방문하여 장기비전 계획 수립 현황과 장기
계획 수립에 동반한 시민 수요 파악 방법을 확인하고자 하며, 방문 경로
상에 거치게 되는 지역의 일부 시사점이 있는 도시개발 사례, 지자체 통
합사례 등을 견학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출장기간 : 2023. 10. 25. ~ 2023. 11. 7.

3. 출 장 지 : 일본(도쿄, 이와테현 모리오카 등)

4. 출 장 자 : 강 영 주

II

출장 일정

일자	시 간	도시	세부 일정	비고 (접속 예정인물, 직책포함)
10.25 (수)	12:05 - 18:55	인천 동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이동(인천국제공항(ICN 11:35) ⇨ 동경 나리타(NRT 14:05) / 티웨이항공 TW0213) - 동경 3박(10.25~10.27) 	
10.26 (목)	전일	동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경도청 자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경도 장기비전 계획(미래동경 전력 버전 업 2023/ 미래 동경 전략 정책 대쉬보드 등) 확보 - 시민 의견수렴 방법 및 수요표현 방법론 도입 현황 확인 	
10.27 (금)	전일	동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경도 정책기획국 시민의견종합창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경도청 정책기획국 시민의견종합창구 운영담당자 면담 - 동경도 장기비전계획수립시의 시민의견 수렴 과정 및 방법 - 동경도청 자료실(장기비전계획 자료 확보) 	정책기획국 시민의견수렴센터 담당 konishi akihira(03-5320-7725)
10.28 (토)	오전	동경센다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경 도시 개발 사업 현지 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경 도시재생사업 현장 방문(오다이바/미드타운) 	
	오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센다이시로 이동(동경역 ⇨ 센다이역) / 신칸센 이용 	
10.29 (일)	전일	센다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즈미 파크타운 도시개발 사례 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7년 이즈미시 합병 이후 이즈미 파크타운 개발 	
10.30 (월)	전일	야마가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마가타현 야마가타시로 이동(렌트카 이용) 야마가타 재난대응 체계 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마가타 자오 동계 및 하계 재난대응 체계 야마가타 대학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수요표현 관련 자료 조사 및 확보 - 지진재해 이후 야마가타 현 시민수요조사 방법론 阿部 晃士 (専門領域: 社会学) 	야마가타대학 사회학과 아베 코지 교수 인터뷰

10.31 (화)	오전	아키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키타현 아키타 시 이동(렌트카 이용) - 아키타 도시공원 조성 및 중심 시가지 방문 	
	오후			
11.1 (수)	전일	모리오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와테현 모리오카시 이동(렌트카 이용) • 모리오카 현청 방문 - 장기비전계획 수립 및 시민의견 수렴 과정 인터뷰 	
11.2 (목)	전일	야마가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리오카 중심 시가지 방문 - 중심시가지 상권 활성화 	
11.3 (금)	오전	센다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야기현 센다이시로 이동(렌트카 이용) • 토호쿠 대학 전문가 인터뷰 - 수요표현 이론의 형성과 발전 과정 	토호쿠대학 전 경제학연구과 권기철 교수
	오후			
11.4 (토)	전일	센다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다이시 중심 시가지 방문 - 센다이역 주변 개발 및 상권 활성화 	
11.5 (일)	오전	동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경으로 이동(신칸센 이용)- 동경 2박 - 우에노 상권활성화 지역 방문 	
	오후			
11.6 (월)	전일	동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경역 지하 상권 활성화 지역 견학 	
11.7 (화)	전일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이동(동경 나리타(NRT 11:35) ⇨ 인천국제공항(ICN 14:35) / 티웨이항공 TW0212) 	

※ 동북 지진 피해 복구 부흥 센다이시 역전마라톤 대회/여자역전마라톤 대회 개최에 따라 일정을 센다에서 인근지역의 토호쿠 4현(미야기현 센다이시, 야마가타현 야마가타시, 아키타현 아키타시, 이와테현 모리오카시)으로 조정. 이에 따라 센다이시 방문을 이와테 현청 방문으로 변경

1. 도쿄도

1) 도쿄도청 장기계획과 시민의견 수렴 과정

도쿄도는 2021년 3월, 밝은 미래의 도쿄를 개척하기 위한 도쿄도정의 새로운 나침반이 될 “미래의 도쿄” 전략¹⁾을 책정하였다. 전략의 방향은 코로나 19로 인해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회의 이상적인 모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전망하고, 문제점의 근원까지 파고드는 ‘구조 개혁’의 강력한 추진 및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의 지속가능한 회복을 목표로 하는 ‘서스테이너블 리커버리’의 실현을 전략의 축으로 세우고 정책을 수립하였다.

장기계획은 다음 4가지 ‘기본전략’을 담고 있다.

1. 역산하는 시점으로 장래를 전망
2. 다양한 주체와 협력하여 정책을 추진
3.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으로 ‘스마트 도쿄’를 실현
4.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애자일’

장기계획의 목표는 2040년까지 아래 20개의 미래 도쿄의 모습으로 대변된다.

1. 어린이의 웃음과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사람이 많은, 가족의 유대감이 사회를 뒷받침하는 도쿄
2. 새로운 교육 모델에 의해 모든 어린이·젊은이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스스로 성장, 자라는 도쿄
3. 여성이 자신의 희망에 맞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여 자신답게 활약할 수 있는 도쿄
4. 고령자가 인생 100년 시대에 건강하게 활약하며 여유롭게 사는 도쿄

1) 도쿄도청 홈페이지(<https://www.metro.tokyo.lg.jp/korean/about/policies/policies01.html>). 도쿄도청 홈페이지에서 한국어로 자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 누구나 자신답게 활기차게 일하고 활약할 수 있는 도쿄
6. 다양한 사람이 상생하여 다양성이 풍부한 도쿄
7. 누구나 모여서 서로 돕는 장소·커뮤니티가 지역의 도처에 존재하는 도쿄
8. 재해의 위협으로부터 도쿄도민을 지키는 강인하고 아름다운 도쿄
9. 범죄, 사고, 화재 대책, 질병 대비 등, 안심·안전한 생활을 지키는 도쿄
10. 고도의 도시 기능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사람이 모이고 힐링이 되는 도쿄
11. 최고의 교통망이 구축된 편리하고 쾌적한 도쿄
12. 디지털의 힘으로 도쿄의 잠재력을 끌어내어 도쿄도민이 질 높은 생활을 보낼 수 있는 '스마트 도쿄'(도쿄판 Society 5.0)
13. 전세계에서 인재, 상품, 자금, 정보가 모이는 세계 제일 개방적인 도쿄
14. 차례로 새로운 산업이 생기는 세계 제일의 스타트업 도시 도쿄
15. 세계 제일의 높은 생산성을 실현한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도쿄
16. 물과 녹색자연을 더욱 풍요롭게 하여 여유로움과 윤택함이 있는 도쿄
17. 무공해 도쿄
18. 문화와 엔터테인먼트로 세계를 매료시키는 도쿄
19. 스포츠가 일상에 녹아든 스포츠의 필드 도쿄
20. 전국 각지와 밀접하게 연계하여 진정한 공존공영을 실현한 도쿄

장기계획의 전략은 10년 단위로 나뉘어지고 있어 2030년까지의 10년 전략과 2040년까지의 장기 전략으로 구분된다.

2030년까지 추진해야 하는 '전략'

전략 0 감염증을 극복하는 전략

전략 1 어린이의 웃음을 위한 전략

- 전략 2 어린이의 ‘성장·육성’ 응원 전략
- 전략 3 여성의 활약 추진 전략
- 전략 4 장수 사회 실현 전략
- 전략 5 누구나 활기차게 일하는 방식 실현 전략
- 전략 6 다이버시티·상생 사회 전략
- 전략 7 ‘거주지’와 ‘지역’을 소중히 여기는 전략
- 전략 8 안심·안전한 도시 조성 전략
- 전략 9 도시의 기능을 더욱 향상시키는 전략
- 전략 10 스마트 도쿄·TOKYO Data Highway 전략
- 전략 11 스타트업 도시 도쿄 전략
- 전략 12 돈버는 도쿄 이노베이션
- 전략 13 물과 녹색자연이 가득한 도쿄 전략
- 전략 14 무공해 도쿄 전략
- 전략 15 문화·엔터테인먼트 도시
- 전략 16 스포츠 필드 도쿄 전략
- 전략 17 다마·도서지역 진흥 작전
- 전략 18 올 재팬 연계 전략
- 전략 19 올림픽·패럴림픽 레거시 전략전
- 전략 20 도쿄도정의 구조 개혁 전략

주요 선도 프로젝트로는 도쿄베이 eSG 프로젝트, 무공해 도쿄·수소사회 실현 프로젝트, ‘국제금융도시·도쿄’실현 프로젝트 등이 있다.



도쿄도 미래전략 책자 표지
 약 390페이지로 구성되며 가벼운 친환경 용지가 사용되었고, 염가에 구입이 가능



도쿄도지사 선언

미래 도쿄 전략의 특징은 첫째, 시민들이 보는 것을 전제로 매우 큰 글씨와 도표, 사진, 그림, 삽화 등으로 보기 편하게 만들었다는 점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목표와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 둘째, 2040년을 목표 시점으로 2030, 2040년의 목표와 전략을 단계별로 설정하였다는 점, 셋째, SDG전략 채용에 따라 각 122개 프로젝트를 17개 SDG목표로 구분하여 SDG목표달성정도를 체크하도록 했다는 점. 넷째, 다양한 시민의견을 반영하고 미래도쿄전략수립이 지역의 주목을 이끌어 낼수 있도록 이벤트화 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큰 그림과 글씨 도표로 알기쉽게 제작된 내용



프로젝트별 SDG목표

시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로는 도내 15세부터 70세까지의 남녀를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여 약 3000인의 응답을 회수하였다. 조사 내용은 20문항으로 최근1년간의 변화, 포스트코로나에 기대하는 것, 도정에 대한 현재의 중요도, 만족도, 이상적인 도쿄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점 등이 포함되었다.



都民意見Webアンケート

調査対象：都内在住の方
15歳から70歳台までの男女
調査方法：インターネット調査
調査時点：令和2年12月
回答者数：2,965人
調査内容：全20問

- ◆この1年の意識の変化
- ◆ポストコロナに期待すること
- ◆現在の重要度・満足度
- ◆理想の東京を実現するために大切だと思うこと

本冊子では結果の一部を紹介しています
全質問・結果はこちらをご覧ください



回答者の属性

年齢	回答数	割合
15~19歳	389	13.1%
20~29歳	396	13.4%
30~39歳	419	14.1%
40~49歳	420	14.2%
50~59歳	419	14.1%
60~69歳	425	14.3%
70~79歳	413	13.9%
不明	84	2.8%
合計	2,965	

性別	回答数	割合
男性	1,362	45.9%
女性	1,519	51.2%
不明	84	2.8%
合計	2,965	

地域	回答数	割合
区部	1,744	58.8%
多摩・島しょ	774	26.1%
不明	447	15.1%
合計	2,965	

職業等	回答数	割合
子生	348	11.7%
勤め(全日)	992	33.5%
勤め(短時間)	298	10.1%
経営・自営	232	7.8%
主婦・主夫	401	13.5%
無職その他	419	14.1%
無回答	275	9.3%
合計	2,965	

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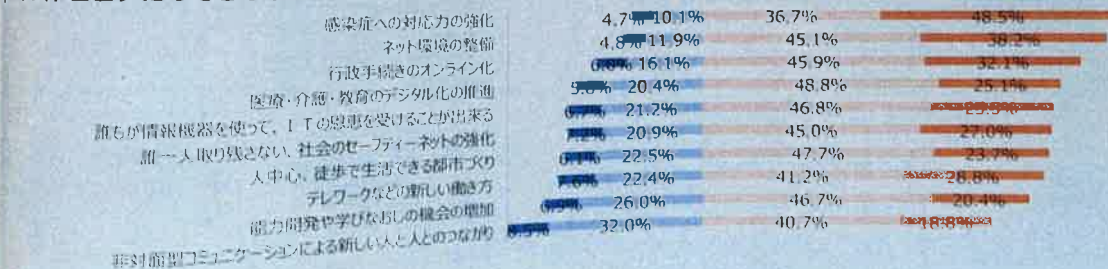
都民意見Webアンケート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拡大により、人との接触が制限され、不安やストレスを感じる機会が増え、自由を奪われたと感じる方が多い一方で、家族や身の回りの人の大切さに気付いた方やこんな時だからこそ前向きでしようと思っけた方が約6割
 感染予防やセーフティネットの強化のほか、テレワークなどの新しい働き方や行政・教育等のデジタル化推進に向けて、誰もが
 恩恵を受けることのできるデジタル環境整備への期待度は高い

この1年であなたが感じたこと (各項目選択回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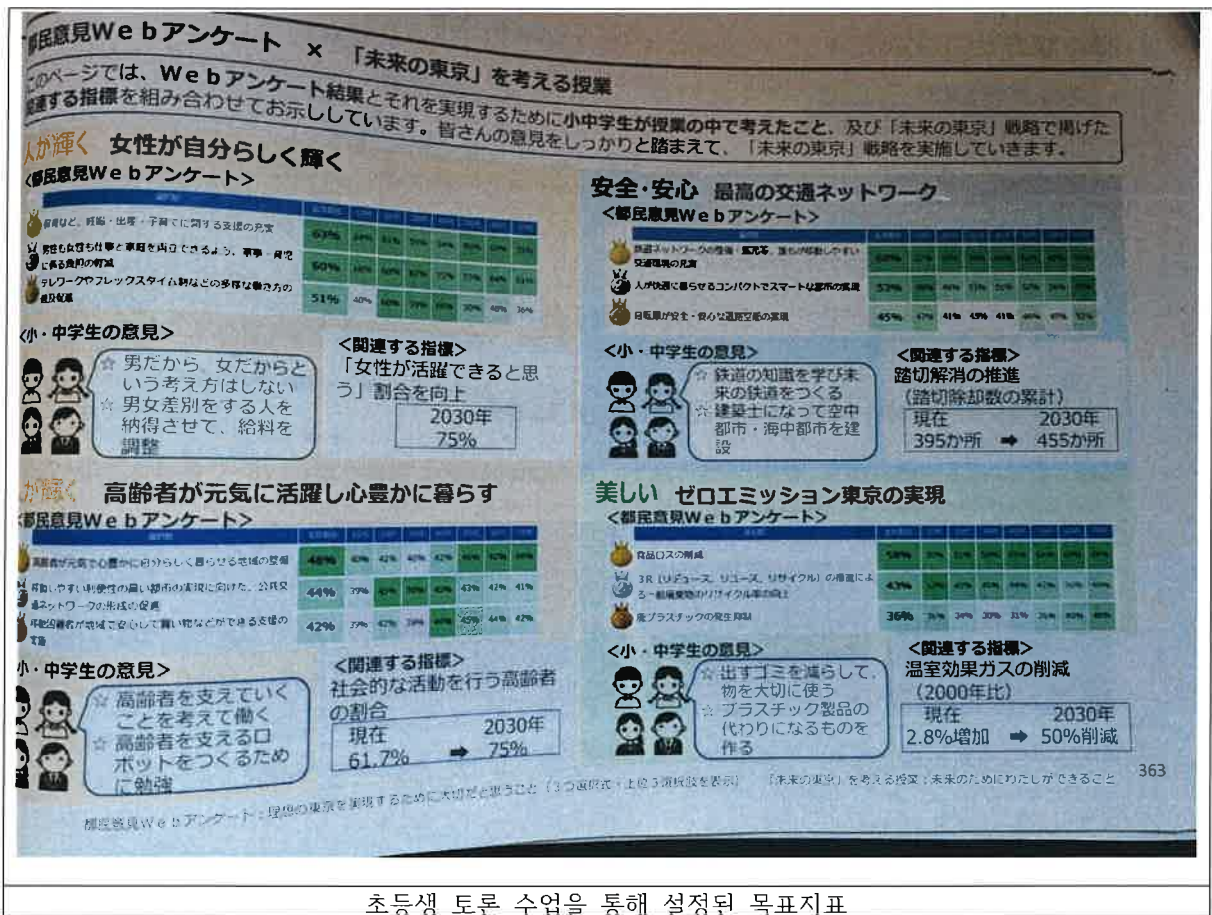


ポストコロナにのぞむこと (各項目選択回答)



361

시민의견 수렴과 관련하여, 레와 2년 약 2개월에 걸쳐 도내 초중학교 2,206인을 대상으로 미래도쿄를 구상하는 토론 수업을 개최하여 미래세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점과 미래의 꿈과 아이디어를 청취하였다. 이 수업은 기존 설문조사 내용을 기초로 해 토론식 수업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문조사에서 나온 중요 포인트와 관련한 초중학생의 의견을 반영해 목표지표, 예를들면 여성이 활약할수 있는 비율 2030년 75% 등이 설정되는 등의 추가 보완이 이루어졌다.



초등생 토론 수업을 통해 설정된 목표지표

각 관련기관의 의견청취를 위해 시구청총장과 지사와의 의견교환이 약 2개월에 걸쳐 순차 이루어졌고, 각종 단체와의 동경도 예산 관련 지사 의견 청취 모임이 약 1개월, 일본경제단체연합회, 신경제연맹, 일본 IT

단체연맹과의 의견교환회 등이 레외 2년 2월에 개최되었다.

様々な方との意見交換

区市町村長と知事との意見交換
実施：令和2年9月16日～11月4日
概要：昨年度に引き続き、「未来の東京」戦略の策定に当たって、都の施策に関連して、各区市町村の重要施策及び都に望むことについて、都内区市町村長と知事が意見交換を実施

各種団体からの東京都予算に対する知事ヒアリング
実施：令和2年11月2日～12月17日
概要：令和3年度予算編成に当たり、現場の実態に精通する団体から、コロナ禍における状況やご意見・ご要望をお伺いする場を設け、都民の声を最大限予算等に反映し、都民目線の事業展開を推進するもの

日本経済団体連合会・新経済連盟・日本IT団体連盟との意見交換会
実施：令和2年2月
概要：経済団体と「未来の東京」戦略の策定に向けて、都市の国際競争力、環境・エネルギー、働き方改革、スタートアップ等について幅広く意見を交換



364

각 관련기관 의견조사(시정촌장, 기타 경단련, IT연맹 등)


기타 도내 초 중학생 대상 미래도쿄 그림전, 도내 거주 주민과 인근지역의 통근, 통학자까지를 대상에 포함하는 도민의견모집 -모두가 이루어내는 도쿄의 미래-이 추진되어 10,936인의 응답이 회수되었고, 도내 13대학(도쿄대학, 릿쿄대학, 와세다 대학 등 포함)을 대상으로한 미래도쿄전략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그 외에도 구시초촌장과 지사와의 의견교환, 전문가 의견청취, 동경미래비전간담회 멤버와의 지사 의견교환 등이 추진되었다.

【参考】「『未来の東京』戦略ビジョン」策定（令和元年12月）までの取組

わたしが大人になった時の東京 絵画コンクール

- 都内在住・在学の小学生、中学生を対象に絵画コンクールを実施
- 受付数：466点


<https://www.seisakukikaku.metro.tokyo.lg.jp/basic-plan/choki-plan/competition/award.html>



都民意見大募集 ～みんなでかなえる東京の未来！～

- 都内在住・在勤・在学の方を対象にアンケートを実施
- 回答者数：10,936人

<https://www.seisakukikaku.metro.tokyo.lg.jp/basic-plan/choki-plan/tominiken.html>



都内大学におけるワークショップ

- 都内13大学（東京工業大学・立教大学・お茶の水女子大学・国士舘大学・駒澤大学・中央大学・東京都立大学・東洋大学・津田塾大学・東海大学・日本体育大学・早稲田大学・東京医科歯科大学）で「未来の明るい東京」をテーマとしたワークショップを開催

様々な方々との意見交換

- ◆ 区市町村長と知事との意見交換
- ◆ 各種団体からの東京都予算に対する知事ヒアリング
- ◆ 有識者ヒアリング
- ◆ 「東京未来ビジョン懇談会」メンバーと知事との意見交換

365

기타 미래전략 수립을 도내 전체의 이벤트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그림그리기, 설문조사, 대학생 워크숍 등)

미래의 도쿄 전략 외에 기타 장기프로젝트로는 신도정구조개혁 QOS 업그레이드전략, 신다마진흥플랜(레이와3년), 도쿄도이도(이즈제도지역)진흥계획, 오가사와라제도진흥개발계획, 도쿄도환경기본계획, 도시계획그랜드디자인, 기타 도로와 항만으로 나누어진 교통 인프라계획 등이 있다.

기타 금번 출장으로 미래도표전략 외에 추가 확보된 자료는 아래와 같다. 자료 관련하여 외국어 버전, 알기쉬운 버전 등 정보를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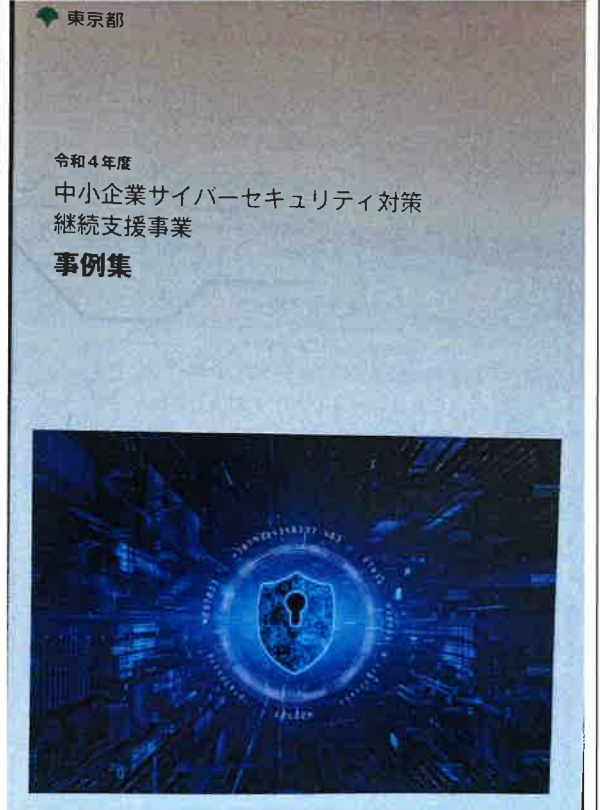
도쿄도 보건복지



도쿄의 산업과 고용 정보서



배출제로 도쿄 전략



중소기업セキュリティ 대책 사례집



도세안내(한국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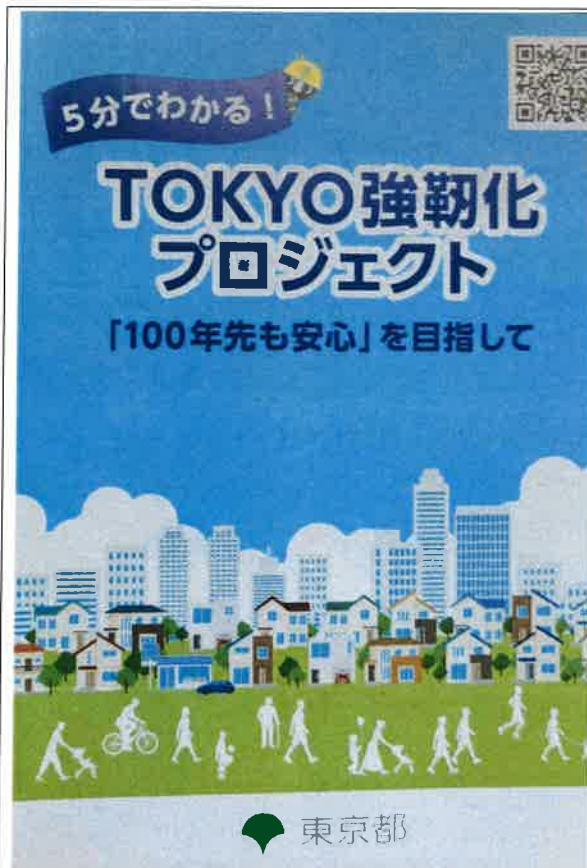
방재가이드북(한국판)



장애인보호조례소개책자(알기쉬운 버전)



도쿄 생활 가이드(한국어판)



도쿄 강인화 프로젝트(알기쉬운 버전)



빈집정보



도쿄도 환경 레드북(개요판)



장애인차별해소 상담사례집

도쿄도청 방문은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롭게 허가되지 않으며, 사전에 신청이 필요하였다. 각 실국에의 방문도 가능하였으나, 금번 방문에서는 도민의견청취창구와 자료실에 한정하여 신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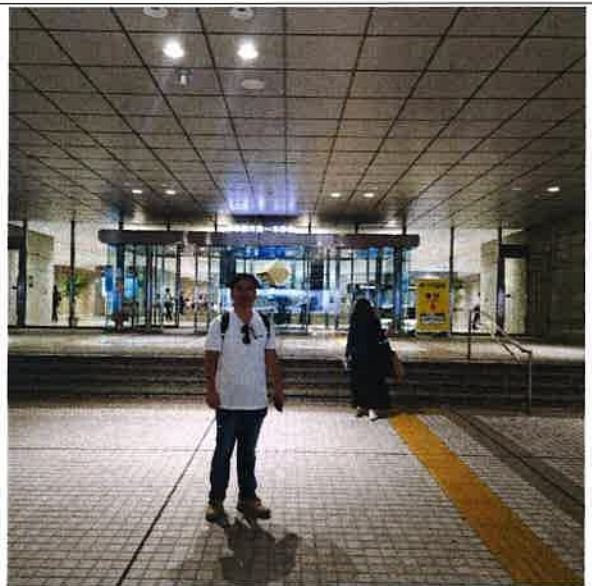
도쿄도청출입증



도청 1층 전국관광소개



도쿄도청남쪽전망대



도청 1층 현관

장기계획수립시의 도민의견수렴과정은 도민의견청취창구의 코니시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으나, 공직자 개인의 사진촬영은 불허되어 담지 못하였고, 의견청취창구만 사진으로 담을 수 있었다. 계획 절차상의 의견청취 외에도 상시 의견청취창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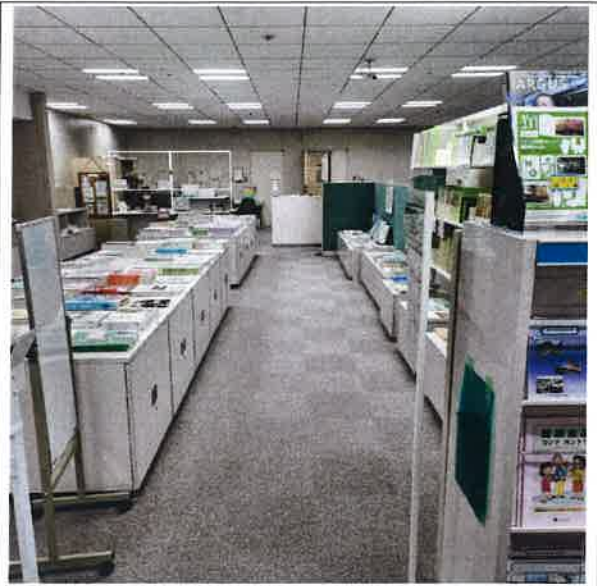
도민의견청취창구

의견청취창구

각종 자료는 자료실에서 무료 혹은 유상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



도쿄도청 자료실



도청 자료실

2) 오다이바 개발 사례

오다이바 개요

오다이바는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港区), 시나가와구(品川区), 고토구(江東区)에 위치한 상업, 레저 및 주거 복합 신도시이다. 여의도처럼 섬이지만 오다이바는 인공 섬이다²⁾. 오다이바에 가기 위해 아사쿠사에서 스미다강을 통해 유람선을 활용할 수 있었고, 돌아오는 길은 도쿄 유리카모메라는 모노레일을 이용하였다.



도쿄 오다이바는 원래 도심 남쪽 약 6km 떨어진 동경만 매립지로서 동경 중심부의 과밀현상을 해소하고자 수변에 건설한 테마형 임해부도심으로 엔터테인먼트와 자연의 조화를 모토로 다양한 상업시설과 전시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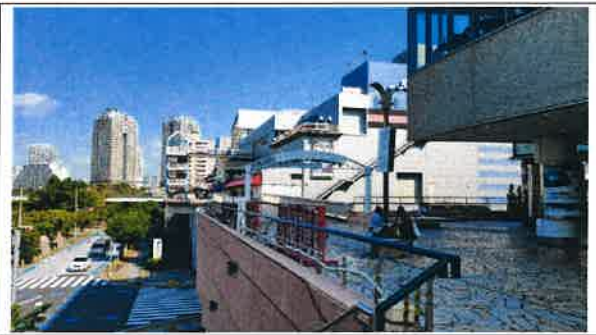
2) 나무위키(<https://namu.wiki/w/%EC%98%A4%EB%8B%A4%EC%9D%B4%EB%B0%94>)

이 건설되었다.

오다이바를 연결하는 린카이센의 2002년 개통으로 후지TV 본사, 호텔, 자동차전시장, 박물관, 멀티플렉스 영화관, 쇼핑몰 등 시설의 다양화를 통해 랜드마크적 건축물이 입지하게 되었다.



오다이바 쇼핑센터



오다이바 쇼핑센터

또한 뛰어난 수변경관에 다양한 공공디자인을 도입하여 수변경관 조망권을 향상시키는 등 해변친수공간을 재개발한 사례로서 주변 해양 생태계를 회복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였다.



오다이바 레인보우 브릿지와 해변친수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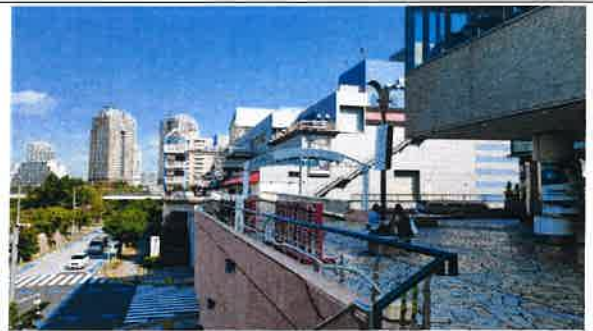


스카이 워크

오다이바 개발 특징은 도보와 차도의 분리를 통해 보행자는 공중의 전용보행데크를 이용하게 하고 지상부의 도로는 주로 자동차가 이용하도록 설계된 점을 들 수 있다. 보행데크 내에는 다양한 이벤트 공간과 시설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활동인구를 유입시키도록 하고 있다.



오다이바 스카이워크



보도 환경



오다이바 상업시설 전경



오다이바 상업시설

오다이바 사례는 도시개발의 성공을 위해서는 물리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 공간 및 시설물 설치, 랜드마크 형성 등 환경개선 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을 재활성화하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을 말해 주고 있다³⁾.

오다이바는 화려한 쇼핑센터와 관광지로 유명한 곳으로 10여년전 방문당시에는 관광객으로 북적였으나 금번 방문했을 때에는 거의 방문객이 없어 쓸쓸한 상태였다. 동경올림픽이나 엑스포 개최, 동경 모터쇼 등 빅이벤트가 있는 시기에는 발디딜 수 없을 정도의 성황을 이루나 일반적인 시기에는 주말의 관광객과 음식점 등이 활성화되는 정도로 보인다.

오다이바 개발 경위

오다이바(台場)는 '방어 목적으로 만든 포대'를 의미하며, 원래는 19세기 말 미국 함대가 일본을 개항시키기 위해 도쿄만에 함대를 파견한 쿠로후네 사건 때 페리 제독이 첫 번째로 찾아왔을 때 기겁한 일본이 페리 제독을 막겠다고 설치한 포대였다. 도쿄도는 1880년대부터 항구 개발을 위해 스미다 강하구의 퇴적물을 준설했는데, 이 중 10호 (현재의 아리아케) 및 13호 (현재의 다이바, 아오미 등) 가 현재의 임해 부도심에 해당한다.

이후로는 일부 포대가 민간에 매각되거나 항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철거되거나 육지로 매립되는 등의 역사를 거치다가 1980년대 버블 경제 시기에 포대 전체가 매립되고 그 위에 신도시가 조성되었다. 그리고 처음에는 고급 맨션들이 들어왔다가(당시 평당 5천만 엔!) 3~4년 후인 1989년쯤 전부 싸그리 밀려나가고 순식간에 업무 지구, 상업 지구로 재개발되었다. 이런 초광속 재개발이 가능했던 것 역시 1980년대 일본 거품경제 때의 엄청난 부동산 버블 덕분이다.

다만 그 버블이 꺼지고 나서는 개발이 지연되었다. 임해 부도심 건설이 1989년부터 27년 계획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즈음부터 버블 경제가 붕괴하기 시작하면서 계획은 무산되었다. 이에 따라 도쿄도에서 시작했던

3) 도쿄 오다이바 도시재생 사례-작성자 수정도시재생지원센터

기업 유치도 실패하고, 이에 세계 도시 박람회도 취소하는 등의 어려움이 따랐다. 이 와중에도 1997년에는 후지 TV 등의 기업이 입주하였고, 2002년에는 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으로 지정해서 투자를 촉진했다.

위의 여정을 거쳐 1990년대 이후 중요한 상업·거주 및 레저의 복합 지역으로 크게 발전하였다. '오다이바(お台場)'라는 명칭은 고토구(江東区)의 아리아케(有明)와 아오미(青海)지구, 시나가와구(品川区)의 히가시야시오(東八潮) 지구를 포함하는 '도쿄 임해 부도심(東京臨海副都心)'을 일컫는 말로 통용된다.

2015년에는 아오미 지역에 BMW 모빌리티 센터 개장, 2016년 환상 2호선 개장, 2017년 다이와 호텔의 호텔, 상업 시설 개장. 2021년 토요타 사무실, 호텔, 컨벤션, 상업, 엔터테인먼트 시설, 전시 시설의 복합 시설이 개장 하였고, 2020 도쿄 올림픽 유치에 성공하면서 투자가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코로나 발생으로 유명 관광지로 많은 여행객들이 찾던 시설들이 코로나 시기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 많은 시설들이 긴 역사를 뒤로하고 매각되어 다른 시설로 바뀌기 위해 재정비중에 있다. 21년 9월 문을 닫은 온센모노가타리는 건물이 싹 사라진 공터로 변했고, 실내에 유럽형 상가와 분수대로 유명한 비너스 포트도 22년 3월 문을 닫았으며, 도요타 자동차 쇼룸인 메가웹, 오다이바 대관람차(22년 8월 폐장) 팀랩 보더리스(22년 8월 전시장 이전) 등의 시설이 전부 폐업하고, 상업시설, 오피스, 아레나(2025년 예정), 호텔 등이 들어가는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예정이다.



오다이바 주요 시설



스카이워크 상부

3) 롯폰기 힐스 개발 사례

(1) 개발 경위

롯데몰 롯폰기 힐스는 롯폰기 거리와 도쿄도 환상 3호선의 결절점인 롯폰기 6초메 교차로의 남쪽에 위치하고, 약 11ha(롯데몰 롯폰기 힐스 게이트 타워를 제외)의 구역이다. 개발전의 구역 중앙에는 TV아사히의 부지가 펼쳐져 있었고, 남쪽의 목조를 중심으로 한 저층 주택지와는 15m 이상의 고저차가 있었다. 개발지 구역 내가 차와 사람이 겨우 엇갈릴 정도의 좁은 일방통행의 도로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어 방재에 문제를 안은 지역이었다.

1986년 11월 이 지역은 도쿄에서 "재개발 유도 지구"로 지정을 받아 모리 빌딩(주)과 아사히 방송이 주도가 되어 재개발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지구 권리자 수 약 500여명이 모여 '재개발 준비 조합'을 설립, 1995년 4월에는 제1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이 결정되어 1998년에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였고, 권리 변환 계획인가를 거쳐 재개발 유도 지구 지정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2000년에 착공되었다.

개발 경위 연표

1986년 11월: 「재개발 유도 지구」 지정

1990년 12월: 「롯데몰 롯폰기 6초메 지구 재개발 준비 조합」발족

1995년 4월: 「도시계획 결정」고시

1998년 9월: “롯데몰 롯폰기 6초메 지구 시가지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

2000년 2월: '권리변환계획' 인가

2000년 4월: 착공

2003년 4월: 준공

(2) 개발컨셉

롯데월드 힐스의 컨셉은 참여하는 공간을 모토로 하고 있다. 주민은 물론 이곳에서 일하거나 모이는 사람 모두 참여하는 공간을 컨셉으로 설계되었다.



중심 건물인 미드타운
(호텔, 전시장, 편의시설이 혼재)



미드타운 주위(사람들이 모이기 쉬운 공간 조성)



미드타운 안내판



층별 구성(1~45층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자유로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공원, 문화시설, 편의시설이 배치되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새로운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창의적인 음식을 맛보며, 현대 사회의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다.

(3) 시설개요

롯데몰 힐스는 단순한 상업 시설이 아닌 21세기 도시 건설의 개념을 토대로 한 개발로 추진되었으며, 가장 큰 개발 목표는 영감을 주는 문화 센터의 창조였다.

롯데몰 힐스의 가장 높은 지역에는 복합 문화 시설인 모리 아트 센터가 위치하고 있고, 센터내는 모리 미술관, 도쿄 뷰 전망대, 모리 아트 센터 갤러리, 롯데몰 힐스 클럽 및 아카데미 힐스로 구성되어 있다. 기타 200여 곳의 레스토랑과 숍, 도심 최초의 멀티플렉스인 TOHO시네마 롯데몰 힐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롯데몰 힐스는 다양한 세계적 건축가와 디자이너가 참여하여 협력한 결과물이다. 롯데몰 힐스 모리 타워는 갑옷을 형상화한 외관 디자인으로 KPF : Kohn Pedersen Fox Associates⁴⁾ (콘 페데르센 폭스 사무소)가 디자인 하였고 건물과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공간(상업 공간)들은 즐거운 사이 공간을 디자인의 컨셉으로 JPI : The Jerde Partnership International, Inc (자디 파트너십)⁵⁾가 디자인 하였다. 기타 레지던스는 C & P : Conran & Partners (콘란 앤 파트너스)에 의해 설계 되었다.

공원을 사이에 두고 일본 유명 건축가인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21_21 DESIGN SIGHT가 위용을 자랑하고 있으며, 도쿄의 가장 유명한 디자인 미술관으로 알려져 있다. 공원을 중심으로 예술작품이 곳곳에 전시

4) KPF는 롯데몰 힐스 모리 타워, 그랜드 하얏트 도쿄, 케야키자카 콤플렉스의 건축 디자인을 총괄했음. KPF는 뉴욕의 대형 건축 사무소. 초고층 건축의 선두 주자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얻고 있으며 건축 기획 설계, 마스터 플랜, 인테리어 디자인을 중심으로 20 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활약. 시카고의 333 웨커 드라이브, 나고야 역의 JR 센트럴 타워즈를 건축.

5) 상업 공간의 연출로 세계 최고의 실적을 자랑하는 건축가. 미국 서해안의 자연을 의식한 디자인이 특징. 샌디에고 호튼 플라자와 하카타 캐널 시티 등을 건축

되어 있어 예술을 중심으로한 소통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방문당시 이자나우 디자인 전시중이었음



토쿠진 요시오카 특별전(FLAME)

문화예술 공간과 더불어 롯폰기 힐스는 29%가 녹지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으로는 사쿠라자카, 로보로보원, 모리가든, 케야키자카거리, 옥상정원 등이 있다.

2. 센다이시

1) 센다이시 도시 개발

센다이 도시권의 거주지 인구밀도는 낮는데, 이것은 국가의 농업 행정의 방침에 따른 토지 이용의 결과로 보인다. 삿포로와 센다이는 강의 중류 유역에 그 중심부가 위치하고 있어서, 하류 지역의 평야를 농지나 공업지역으로 이용하거나 도시화하게 된다. 삿포로의 경우에는 하류 지역이 이탄지였으므로 도시화되지 않았고, 센다이는 국가의 방침으로 도시화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거주지 면적을 농지가 차지하게 되었고, 거주지 인구 밀도도 낮다. 다른 대도시권의 경우에는 그 중심부가 하류나 연안 평야에 위치하고 있어, 평지의 대부분이 도시화되어 삿포로나 센다이에 비해 거주지의 인구밀도가 극단적으로 높다.

국가의 정책과 '숲의 도시'와 택지 개발

센다이 도시권의 도심부 이외의 평야나 하천가의 평지에서는 산미 증산시에 국가의 정책에 따라 토지 개량 사업이 실시되었고, 직사각형의 토지에서 대규모 벼농사가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농지는 일부가 세금을 이용해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 목적 이외의 상업지나 주택지로 용도를 전환하는 것이 조례로 규제되어 왔다. 이때문에 센다이 도시권에서는 원래 주거지역으로 적합한 평지를 택지로 이용하지 못하고, 도심부의 북서부에서 서부에 걸친 구릉지역에 택지를 조성해 수요를 충족해 왔다.

그러나 '숲의 도시'(杜の都)라는 별명을 가진 센다이는 조례를 통해 구릉지 삼림의 택지 개발도 규제하고 있어, 개발할 수 있는 구릉지는 도심에서 먼 지역으로 한정되었다. 또한 구릉지에 택지를 조성했기 때문에 골짜기를 낀 주택지가 언덕에 분포하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이 전제가 된 결과 센다이 도시권은 동선이 길고 밀집 지역은 좁은 비효율적인 도시권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는 히로시마 도시권이 평지나 골짜기, 해안선

변이 좁은 토지에 인구가 집중되었고, 전철이나 고속도로를 통해 효율적인 고도의 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센다이에서는 비효율적인 도시권의 해소를 목적으로 지하철 난보쿠 선을 개통해 북부의 구릉지 주택지에서는 동선이 고속화되었지만, 지금도 도시권 내 대부분의 주택지에서는 자가용에 의지해야 하고, 정령지정 도시 중에서 교통 정체가 가장 지독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하철과 철도 선변의 개발

현재 센다이 시는 센다이의 동서 축의 고속화를 목표로 지하철 도자이 선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다수의 대학과 고교를 연결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도자이 선이 중요한 이유는 센다이 도시권이 가진 비효율성의 상징이던 동부 지역의 광대한 농지를 도시화·택지화하는 인프라 스트럭처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 기술한 것처럼 시의 동부 지역은 일부가 세금을 이용해 정비되었기 때문에 시가지나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도자이 선이 통과하는 것만으로도 용도 변경에 중요한 조건을 가지게 된다. 이는 효율적인 도시권의 구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동부 지역 농지의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1970년대 초에 마쓰시마정에서 이와누마시까지를 센다이를 중심으로 병합하여 정령지정도시로 승격하는 것을 계획했을 때에도, 센다이만 연안 평야로 확대된 효율적인 도시권을 형성하는 것이 기대되었지만, 결국에 병합에 실패하여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서부의 구릉지대로 확대된 비효율적인 도시권이 되었다.

또한 동서선의 경우 외에도, 센다이 도시권에서는 개발이 가로막혀 있었던 농지의 도시화·택지화가 진행되고 있다. 센다이 도심지역과 다가조 시 사이의 JR 센세키 선의 선변에 위치한 넓은 농지에 고즈루신덴역을 신설하여 도시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센다이 시에 남쪽으로 접한 나토리 시의 농지에도 JR 도호쿠 본선에서 갈라진 센다이 공항선이 신설되는 것

과 함께 선변의 토지 용도 변경을 통해 도시화를 진행하고 있다. 연안 평야의 넓은 농지가 도심 지역의 열섬 현상의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센다이 도시권의 비원이었던 농지의 도시화는 균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센다이역 주변 개발⁶⁾

2009년 여름, JR 동일본은 센다이시 지하철 동서선 개통에 따라 동쪽 출입구 일대의 재개발에 착수하는 구상을 발표했다. 계획 변경 등을 거쳐 2012년 1월 재개발 계획을 정식 발표, 2013년 3월 27일 재개발 공사가 착공되었다.

이에 따라 센다이시는 서쪽출입구·동쪽출구 앞 광장의 재정비를 실시해, 버스 터미널을 증설, 이설·개편했다. 이에 따라 센다이역을 통해 신칸선으로 일본 전역과 연결되고, 동서남북의 지하철로 센다이 시내 전역이 연결되며, 시내버스, 공항버스, 시외버스가 한곳에서 이어지는 교통망을 구축하게 되었으며, 센다이역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었다.

⁶⁾일본 위키피디아 <https://ja.wikipedia.org/wiki/%E4%BB%99%E5%8F%B0%E9%A7%85>



평일임에도 동경역이나 우에노역처럼 붐비는 센다이역 구내



역내 1층 지역토산물 판매대



관광객으로 붐비는 구내

2021년 2월 5일 개업의 「JR 센다이 이스트 게이트 빌딩」의 완공을

통해 동쪽 출입구 일대의 재개발 사업이 완성되었다.

동서 자유 통로의 확대

센다이 역의 동서를 연결하는 자유 통로의 폭이 6m에서 16m로 넓어졌다. 통로는 3층의 구조로, 2016년 3월 18일에 완성되었다. 통로 확폭 공사비의 3분의 2는 센다이시가 부담했다.



동서 자유 통로



자유통로와 이어지는 백화점

상업시설과 신개찰구 설치

동서자유통로의 양측, 재래선 홈 위에 2동의 상업시설 「에스파르 센다이 동관」이 건설되었다. 북동은 4층/지하 1층, 남동은 6층/지하 1층으로, 자유통로를 합친 바닥면적은 약 43,000제곱미터이다. 자유 통로와 마찬가지로 2016년 3월 18일에 완성되었다. 북동 2층부에는 신개찰구, 남동 상층에는 약 250대분의 주차장이 신설되었다.



동측 출입구와 백화점, 유도바시카메라



역과 연결된 버스환승센터

역과 관련하여 기타 호텔 메트로폴리탄 센다이가 건축되었고, 에스팔 센다이 백화점이 개업해, 센다이역 동서 자유 통로와 히가시구치역 앞 광장을 연결하는 동선도 완성되었다. JR 센다이 이스트 게이트 빌딩이라 명명된 오피스동은 Zepp Sendai 터에 건설되었다. 이로써 센다이역은 교통과, 사무, 호텔과 쇼핑이 연결된 명실상부한 센다이의 중심으로 거듭난다.



요도바시카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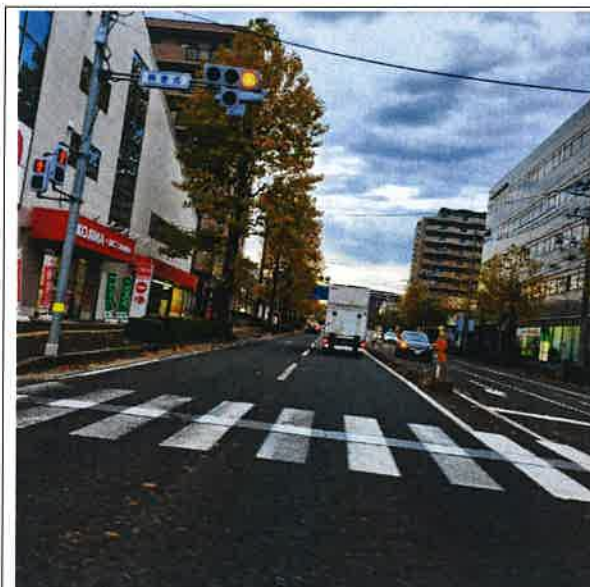
동측 출입구 앞 친환경 도로정비

2) 센다이시-이즈미시 행정구역 통합

이즈미시 통합 개요

이즈미시는 고도 성장기부터 구릉부의 택지 개발이 서서히 진행되어 센다이 시의 주변 주택 지역으로서 발전했고, 1988년에는 센다이 시에 편입 합병되었다. 이듬해인 1989년에 센다이 시의 정령 지정 도시 이행과 함께 이즈미 구가 되었다.

이즈미 시는 서쪽의 논을 조성해 이즈미 시청과 이즈미티 21 등 공공 시설을 건설하였고, 센다이 시가 된 후인 1992년, 센다이 지하철 난보쿠 선이 이즈미추오 역까지 연장되면서 역주변을 중심으로 발전했고 이즈미추오 주변 개발 계획에 의해 상업 시설이 집약했다. 1997년에는 J리그 베갈타 센다이의 홈구장인 센다이 스타디움(현 유아텍 스타디움 센다이)이 완성되어 시합 개최일에는 1만 명이 넘는 관객이 유입된다.



이즈미중앙역



이즈미 중앙역 주변 상가

이즈미시와의 통합과 지하철 연장 건설

센다이시에는 1960년대 고도성장으로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시 당국에서 지하철 건설을 결정하였고, 그 결실로 1981년에 난보쿠선이 착공되어 1987년 7월 15일에 야오토메 ↔ 토미자와 구간이 개통되었다. 이후 1988년에 이즈미시(泉市)가 센다이시로 통합되면서 지하철을 이즈미쥬오까지 연장하여 1992년 7월 15일에 완공하였다.

센다이 남북선 지하철은 시 북쪽의 이즈미쥬오(泉中央) 부도심에서 출발하여 나나키타(七北田) 주택지, 키타센다이, 센다이역 및 도심, 나가마치(長町) 부도심을 거쳐 나토리가와(名取川) 북안의 토미자와(富沢) 지구까지 센다이시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노선이다⁷⁾.



7) 참고자료: 센다이시 도시 기본계획(2021-2030) 개요판 파일(sendaibasicplan_outlineversion_korean.pdf). 출처: city.sendai.jp 센다이시청홈페이지

3) 센다이 도시권 연합

미야기현이 지정한 광역 행정 추진 지역은 '광역 센다이 도시권' 또는 간단히 '센다이 도시권'이라고도 부르며, 센다이 도시권 광역 행정 추진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미야기현 추계 인구 의 월보에서는 매월 인구 통계를 발표한다. 센다이 도시권과 야마가타 현 무라야마 지방으로 구성된 센다이·야마가타 교류 연휴 추진회에서는 센다이 도시권의 틀을 형성하고 있다.

센다이 도시권(일본어: 仙台都市圏)은 정령지정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센다이시를 중심으로 하여, 센다이평야를 기반으로 형성된 경제 지역 또는 미야기현이 지정한 광역 행정 추진 지역을 가리킨다.

2000년 인구 조사에서 10% 통근권(도시고용권⁸⁾)에 따른 센다이 도시권의 인구는 약 156만 명으로, 히로시마 도시권과 비슷하며, 7대 도시권의 하나이다.

최근 센다이 도시권은 오우산맥을 사이에 둔 야마가타현의 무라야마 지방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어, 이른바 '쌍둥이 도시'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후쿠시마현 북부나 이와테현 남부까지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른바 센다이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 센다이 경제권에 속하는 지자체는 미나미토호쿠 SUN플랜(미나미토호쿠 중추광역도시권)이라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대규모 행정을 도모하고 있다.

8) 도시고용권(10% 도시권·10% 통근권)의 기준은 각 시정촌의 통근자 중 10퍼센트 이상이 중심 도시로 통근하는 경우, 도시권을 구성하는 시정촌으로 본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00년의 센다이 도시권의 인구는 약 156만 명으로, 이들 도시권 내의 시정촌에서 센다이 시로 통근·통학하는 사람은 약 10만 명에 달한다. 일본 총무성의 기준에 따르면 센다이 시의 '1.5% 통근·통학권'은 '센다이 대도시권'이라고 할 수 있고, 7대 도시권에서 6번째 규모가 된다. 1995년의 조사를 바탕으로 하면 '1.5% 도시권'의 영역은 JR 센다이역을 중심으로 하는 반경 50킬로미터에서 야마가타현 무라야마 지방(야마가타시 등)을 제외한 지역과 거의 동일하다. 센다이의 1.5% 도시권에는 북부 산간지역

센다이 도시권에서는 1970년대 중반까지도 도시축이 센다이시의 중심부에서 JR 센세키 선변에 위치한 다가조와 시오가마, 마쓰시마 방향으로 연장되고 있었으므로, 센엔(선을 중심으로 발전한 선상도시)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센다이 시 도심부를 중심으로 하는 방사형의 도시권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센엔으로 불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3. 이와테현과 모리오카시

1) 이와테현과 모리오카시 개요⁹⁾

이와테현(岩手県いわてけん, Iwate-ken)은 일본 도호쿠 지방에 위치한 현으로, 아오모리현, 아키타현, 미야기현과 접한다. 현청 소재지는 모리오카시이다.

일본에서 가장 넓은 현이자 도도부현 중 홋카이도에 이어서 면적 2위를 자랑한다. 다만 대부분이 넓은 산지 인지라 인구는 많지 않고, 미개척지 비율이 홋카이도 다음으로 많다.

이와테현에는 신칸센 개통 이전까지는 특별한 산업이 없어, 일본 도도부현 통틀어서 경제력이 최하위권에 머물렀으나, 신칸센이 연결되면서 산업이 조금씩 생겨나서 지금은 47개의 도도부현 중 30위 후반권이다.

모리오카시는 이와테현의 중심도시로 이와테현의 현청 소재지이다. 1982년에 도호쿠 신칸센이 개통된 이후에는 도호쿠 지방 북부의 교통 거점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지고 2000년에는 특례시로 지정되었다.

9)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9D%B4%EC%99%80%ED%85%8C%ED%98%84>



보행도와 공원

모리오카시의 상징 이시와레벳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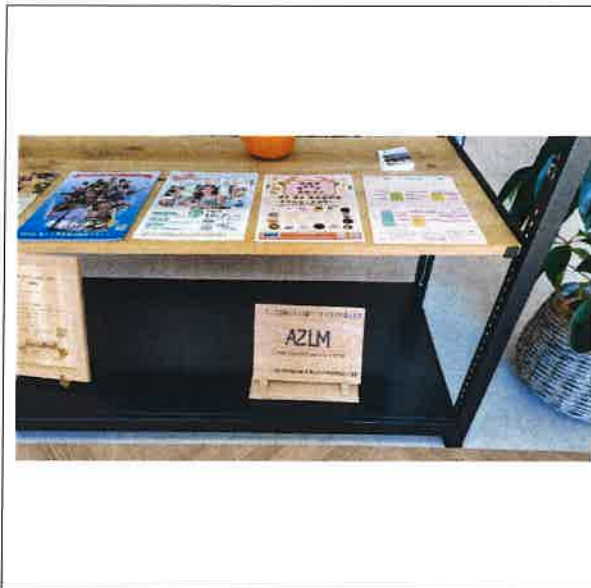
2) 이와테 커뮤니케이션 카페(AZLM)

AZLM은 From A to Z , Live Marketing의 약자로, 모든 상품을 라이브로 마케팅할 수 있는 미래형 공간을 의미한다.

Cafe라는 일상 공간 속에 우발적인 고객 체험을 녹여 '지방 창생'을 테마로 '리얼 체험'과 '디지털 장치'로 발신하는 완전히 새로운 '일상 공간 × 상공 공간'이 「AZLM CONNECTED CAFE」가 추구하는 목표이다.

대기업 등과의 타이업, 전국의 지자체와의 제휴를 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점내에서는 전국 각지의 토산품 정보를 보고 · 만지고 · 시험할 수 있으며, QR 코드를 읽어들이어 쇼핑 사이트로부터 구입도 할 수 있다.

AZLM 이와테점은 이와테현과 NTT동일본의 지원으로 설치되었으며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커피와 각종 음료, 간단한 식사류를 구입할 수 있으며, free WIFI존으로 운영되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특산품을 접해보고 구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AZLM 소개 정보지



카페 내부



카페



특산물 매대

3) 이와테현 장기 발전계획과 시민의견 수렴 과정

이와테현민계획(2019~2028)

이와테현은 광역자치단체로서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을 '이와테현민계획'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이 계획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지진해일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복구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함께 현민의 행복을 지키고 키우는 희망의 고장 이와테를 실현할 것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테현민계획 장기비전 표지

이와테 현 담당자 인터뷰

이에 따라 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힘이 되어 주고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행복을 지키고 키울 수 있는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민계획은 장기비전과 액션플랜으로 구성되어있으며, 4+4+2년의 단계별 계획으로 구성된다. 10개 정책분야는 17개 SDG목표별로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2028년 정성목표와 함께 정량목표가 제시되고 있다.

계획은 1장 서론부터 현황분석, 기본목표, 기본방향, 정책추진방안, 주요프로젝트, 지역별 진흥방향, 행정경영자세 등 8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

고, 주요프로젝트는 11개가 제시되어 있다. 계획은 일본어와 영어로 작성되어 있다.

현민계획 수립시의 시민의견 수렴과정

현민계획 확보를 위해 이와테 현청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자료는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기타 자료로는 현민계획 개요, 인구감소대응사례집, 방재, 지진 감재 국토강인화 5개년 가속화계획, 이와테행복백서, 레이와5년도 현토정비행정 개요 등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현민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이와테현종합계획심의위원회)가 이와테 대학총장을 위원장으로 2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각 부문별 소위원회가 상설부 3개부가 25인, 청년특별부가 6인으로 구성되었다.

5 岩手県総合計画審議会委員(第20期)

任期:平成30年(2018年)4月1日~令和2年(2020年)3月31日
(20名・51歳以下)

職名	姓 名	職 名
会 員	岩 淵 功	岩手大学員
副会長	伊 田 英 樹	一般社団法人岩手経済開発促進 副代表理事 (株式会社BC岩手推進 代表取締役社長)
	坂 沼 成 成	岩手大学人文社会科学部 教授(スポーツ社会学)
会 員	五十嵐 のぶ代	一般社団法人岩手県PTA連合会 顧問
	五 田 市 郎	株式会社パイロットフィッシュ 代表取締役
	伊 藤 真 子	NPO法人SRI-Aネット 代表理事
	上 田 康 一	岩手県出雲 代表理事
	柳 谷 永 生	一般社団法人岩手県大連市連 事務局長
	栗 沢 雅 人	NPO法人wac 理事, COO
	酒 井 明 夫	岩手医科大学 幹事長
	佐 藤 富美子	NPO法人ゆう・もあ・ほっと 代表
	下 向 規 典	NPO法人のAのりだ塾塾 代表理事
	高 橋 謙	社会福祉法人千晶会 特別養護老人ホーム千年初 院長
	田 中 昭 也	一戸町長
	谷 藤 邦 樹	株式会社イーアルアイ 監査役
	千 田 修 次	株式会社千田精密工業 取締役
	原 川 かおる	NPO法人岩手労働問題 主任コーディネーター
	高 野 勇 孝	岩手モリヤ株式会社 代表取締役社長
	八 幡 博 文	日本労働組合総連合会岩手県連合会 会長
	吉 野 英 経	岩手県立大学 総合政策学部長

이와테현민계획 심의위원회

6 岩手県総合計画審議会 部会委員名簿

1 通常部会

1 岩手の暮らし部会

2 岩手の仕事部会

3 岩手の学び・文化・スポーツ部会

2 特別部会

1 岩手の若者部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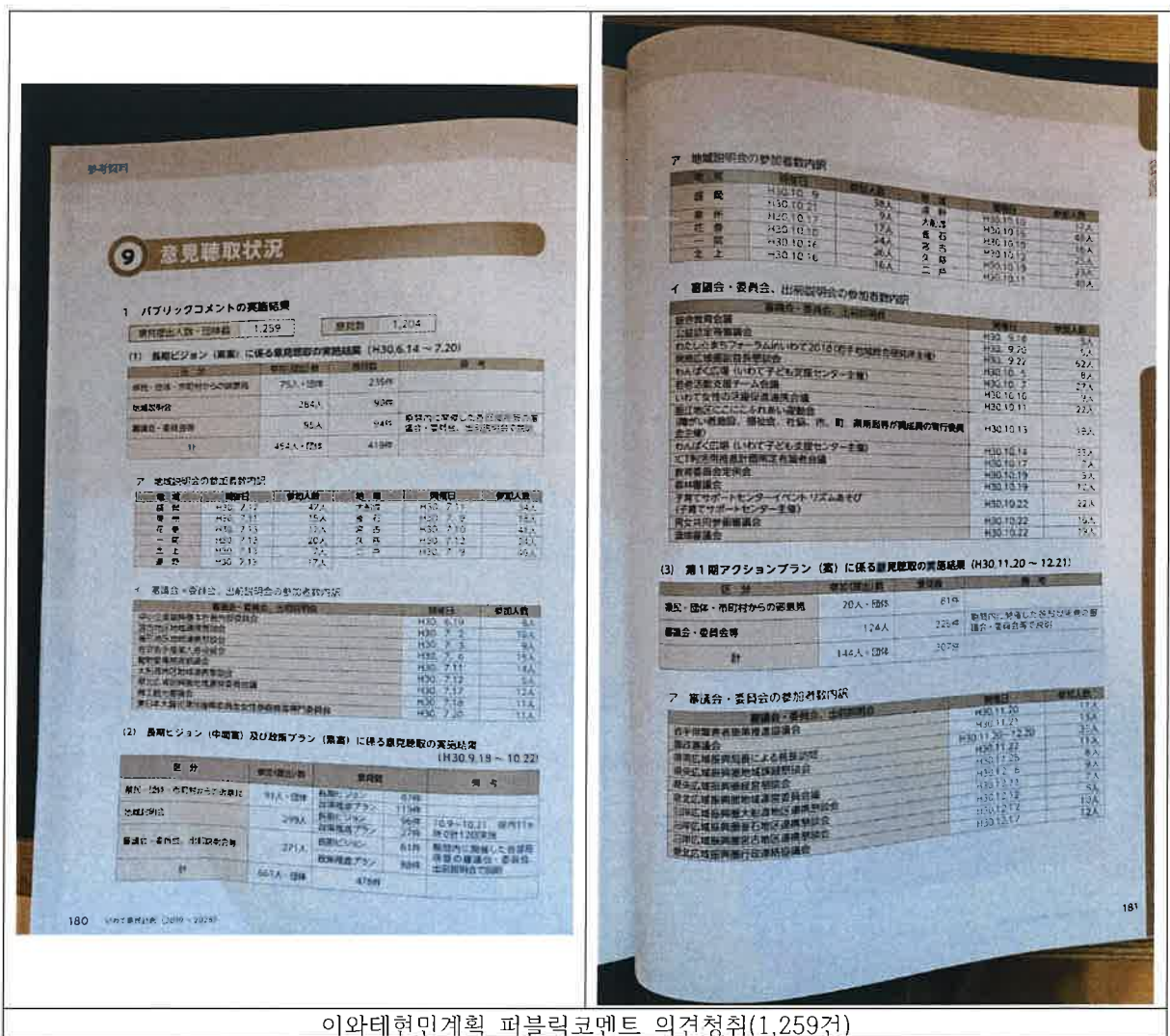
소위원회

현민계획은 약 1년(평성29년 11월~평성31년 2월) 3개월에 걸쳐 총 7회에 걸친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4회에 걸친 소위원회를 거쳐 확정되었다. 이 기간중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었다.

퍼블리코멘트를 통한 의견청취가 총1,204건 접수되었고, 총 71기관단체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이루어졌고, 이와테현 총 시정촌장 의견교환세미나 1회, 지사참여 시정촌장 의견교환 4회가 추진되었다. 기타로도 전문가 의견청취를 위한 인터뷰가 7회에 걸쳐 추진되었다.

설문조사는 차기종합계획책정 관련 현민의향조사가 5000명(응답 2980건)을 대상으로 추진되었고, 현민행복 조사가 각종 현이 개최하는 회의

이벤트에 참여한 6,91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미래세대 의견 반영을 위한 중고생대상 설문조사가 현내 공립중학교 2학년 1,306명, 고등학생 2학년생 2,317명을 대상으로 추진되어 3,484건이 회수되었다. 기타 이와테현 문화대사 146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도 추진되었다. 행복 조사는 추가적으로 시청직원, 지역내 대학생, 회사원 등을 대상으로 21회에 걸쳐 총 407명이 참여하는 심층 육사를 개최하였다. 그 외에도 이와테 희망학원 원장 161인, 현민포럼 96인, 현내 대학생 의견교환 이와테 미래포럼 502건 등과 각종 글짓기 그림그리기 등의 행사가 추진되었다.



이와테현민계획 퍼블릭코멘트 의견청취(1,259건)

4 有識者との意見交換会

開催日	開催地	出席者
H29.9.20	中央大学	東京 幸野がための生大事務局、高松と所野を証生協(アソシエイト)
H29.2.10	岡山 三島建設	岡山 幸野がための生大事務局
H30.1.23	岡山 三島建設	岡山 幸野がための生大事務局
H30.4.21	多摩大学	多摩大学 社会科センター(多摩大学連携センター) 多摩大学 経済学部 経済学系 多摩大学 経済学部 経済学系
H30.6.24	多摩大学	多摩大学 社会科センター(多摩大学連携センター) 多摩大学 経済学部 経済学系
H30.7.23	多摩大学	多摩大学 社会科センター(多摩大学連携センター) 多摩大学 経済学部 経済学系
H31.3.25	多摩大学	多摩大学 社会科センター(多摩大学連携センター) 多摩大学 経済学部 経済学系

5 各県アンケート調査

(1) 次期総合計画策定に係る県民意向調査 (H30.1-2 調査)

目的	若手層の現状や10年後の姿、各分野における政策の方向性に対する県民の関心等を調査し、今後 県庁の中で取り巻くべき政策の方向性を明らかにする。
対象	県民(20歳以上の18歳以上の男女5,000人を対象 (返答率 59.4%、返答数: 2,980人))
調査項目	生活全般の満足度や「幸福」に関する行動や考え方、「若手の幸福」に関する期待、研究など

(2) 若手層内の中高生を対象としたアンケート調査 (H29.11-12 調査)

目的	若手の状況を把握し、若手層の現状や10年後の姿、各分野における政策の方向性に対する関心等を調査し、今後 県庁の中で取り巻くべき政策の方向性を明らかにする。
対象	県内の公立中学校の2年生1,306名及び私立高校の2年生2,317名を対象 (返答率 96.2%、返答数: 3,484名)
調査項目	「現状の幸福度」や「若手層への要望」、「若手層の悩みや不安」、「10年後の若手層」に関する調査、10年後の若手で住みたいと感じるために自覚すべき項目など

(3) 県民層において文化大使を対象としたアンケート調査 (H29.11 調査)

目的	県外で活躍している県民層において文化大使の役割を担った「現在の若手層のイメージ」や「これからの10年の若手層」に対する期待や不安、今後の若手層の方向性を明らかにする。
対象	平成29年10月時点で県民層において文化大使に登録されている146名 (返答率 41.8%、返答数: 61名)
調査項目	「現状の若手層」に対するイメージ、「若手層の悩みや不安」、「10年後の若手層」に関する調査、10年後の若手で住みたいと感じるために自覚すべき項目など

(4) あなたの「幸福」に関するアンケート (H29.9~H30.3 調査)

目的	あなたの「幸福」に関する考え方を調査する。
対象	幸福に関する意識調査やアンケート等に参加された方(6,911名)
調査項目	「現在の幸福度」や「幸福を考えたときに意識する項目」、「幸福のために自分ができること」

6 幸福について考えるワークショップの開催実績

開催地	開催日	開催場所	参加者数	開催内容
飯島	H29.12.13	飯島地区合同庁舎分庁舎	14人	若手層の現状
津島	H29.12.26	久慈地区合同庁舎	10人	若手層の現状
雄勝	H30.1.10	若手層合同庁舎	10人	若手層の現状
雄勝	H30.1.16	若手層合同庁舎	9人	若手層の現状
雄勝	H30.1.17	若手層合同庁舎	8人	若手層の現状
雄勝	H30.1.17	若手層合同庁舎	12人	若手層の現状
雄勝	H30.2.14	若手層合同庁舎	10人	若手層の現状
雄勝	H30.2.14	若手層合同庁舎	13人	若手層の現状
雄勝	H30.2.23	若手層合同庁舎	15人	若手層の現状
雄勝	H30.2.28	若手層合同庁舎	15人	若手層の現状
雄勝	H30.3.5	若手層合同庁舎	4人	若手層の現状
雄勝	H30.3.8	若手層合同庁舎	26人	若手層の現状
雄勝	H30.7.23	若手層合同庁舎	120人	若手層の現状
雄勝	H30.9.12	若手層合同庁舎	24人	若手層の現状
雄勝	H30.11.7	若手層合同庁舎	15人	若手層の現状
雄勝	H30.11.20	若手層合同庁舎	15人	若手層の現状
雄勝	H30.12.15	若手層合同庁舎	22人	若手層の現状
雄勝	H31.2.15	若手層合同庁舎	22人	若手層の現状
雄勝	H31.2.24	若手層合同庁舎	30人	若手層の現状
雄勝	H31.2.27	若手層合同庁舎	13人	若手層の現状
雄勝	H31.3.9	若手層合同庁舎	40人	若手層の現状
合計			407人	

7 その他の意見聴取の実施状況

実施項目	実施日	参加者数
「いたて県政報告」での意見聴取(若手層)	H29.11.4	161人
若手層の現状に関するアンケート	H29.12.9	30人
若手層の現状に関するアンケート	H30.1.20	96人
若手層の現状に関するアンケート	H30.1.28	13人
若手層の現状に関するアンケート	H30.2.16	152人
若手層の現状に関するアンケート	H30.2.23	502人
若手層の現状に関するアンケート	H30.2.28	1217人
若手層の現状に関するアンケート	H30.3.5	837人
若手層の現状に関するアンケート	H30.3.8	317人
若手層の現状に関するアンケート	H30.3.15	317人

IV

출장성과(또는 기대효과)

향후 대전시 도시개발 관련하여

- 첫째,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예술/쇼핑/편의/인프라가 복합된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소의 기능집중이 필요하다. 사람이 모이는 공간을 디자인함에 있어 사람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더불어 친환경적이고 친예술적인 공간으로, 사람이 모이는 공간을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 롯데백화점의 성공은 도교도 중심이라는 위치와 교통망의 중요성도 있으나 애초부터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디자인한 개발계획의 역할이 지극히 컸으며, 친환경적이고 친예술적이며, 쇼핑과 편의시설이 집중된 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 둘째, 오다이바의 사례와 같이 시설개발로는 지속적인 활성화를 도모할 수 없다. 이벤트와 같이 추진되는 개발은 이벤트의 종료와 함께 심각한 위기가 도래하므로 각종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 셋째, 센다이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기능의 복합화 뿐만 아니라, 교통망의 복합화가 매우 중요하다. 신칸센과 지하철, 시내버스, 시외버스, 공항버스가 한곳에서 모이는 교통의 결절점을 구성함과 동시에 호텔, 쇼핑 등의 기능이 집중됨으로써 센다이시의 성장잠재력이 급격히 높아진 사례는 큰 시사점을 준다.

비전계획 수립시의 시민의견 수렴과 관련하여

- 첫째, 시민의견 수렴은 설문조사를 뛰어 넘어, 시민의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정기간 의견 조사를 상시화하고, 전문가 의견청취, 관계기관 의견청취, 산하기관 의견청취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계획작성과 함께 의견조사 기간을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병행 고려해야 한다.

- 둘째, 시민의견 수렴과정은 지자체장의 주도로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각 부문 요소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자체장이 참여하여 직접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셋째, 시민의견 수렴 과정을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 이벤트로 구상하여야 한다. 시민모두가 정책수립에 참여한다는 주권감을 줄수 있도록 구상하고,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수요파악이 가능하다. 각종 그림그리기, 각종 지자체 추진 행사 참여자로부터의 의견청취, 대회, 글짓기, 대학생 워크숍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 가능하다. 이러한 의견을 정리하고 다시 심화하는 과정을 거쳐 수요를 고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넷째, 미래세대의 의견청취 또한 중요하다.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할 필요가 있고, 이를 명시하는 지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 다섯째, 시민의 이해도가 높을 수 있도록 보고서를 총보고서와 시민판 알기 쉬운 보고서로 대별하여 시민 보고서의 경우 매우 쉬운 표현과 글, 그림으로 구성하여 시민의 정책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 SDG 목표의 실현을 정책에 끌어들이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 가능하도록 SDG목표를 정책수단과 연결하고,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추진체계의 구축도 필요하다.

1. 하드카피 확보자료

○ 도쿄도 장기비전계획

- 미래의 도쿄 전략(2021.3)
- 라이프 인 도쿄 가이드
- Zero Emission Tokyo 전략
- 도쿄도 중소기업 사이버セキュリティ 대책 사례집
- 도쿄도 도세 안내
- 도쿄도 마을 지역 위험도(지진 위험도 측정조사 자료)
- 도쿄도 방재 가이드북
- 도쿄도 빈집 가이드북
- 도쿄의 복지보건(2023)
- 도쿄도 감사 개요

○ 센다이시 기본계획(2021~2030)

○ 이와테현 장기비전계획

- 이와테현민계획(2019~2018), 요약 포함
- 레이와5년도 현도정비행정 개요
- 이와테 방재/감재 국토강인화를 위한 5개년 가속화대책
- 현도정비부의 인구감소대책 사례집

2. 파일 확보자료

○ 수요표현 관련 연구 논문

- Demand articulation in the open-innovation paradigm(2015),

Fumio Kodama and Tamotsu Shibata, Journal of Open Innovation Technology, Market, and Complexity

-化学分野の大型プロジェクトにおけるマネジメント — 需要表現による分析—(평성 13년), 野口直平, 玄場公規, 児玉文雄. Japan Society for Research Policy and Innovation Management.

-Wouter P.C. Boon, Ellen H.M. Moors, Stefan Kuhlmann, Ruud E.H.M. Smits(2011.3), Demand articulation in emerging technologies: Intermediary user organisations as co-producers?, Research Policy 40(2):242-252